

# 기억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지영

전시 [이 선생에 관하여]는 월북과 한국전쟁이라는 두 사건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동명의 영상 작업인 〈이 선생에 관하여 How to (not) live a legacy?〉(2023)는 한 월북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삼대 간의 대화를 통해 전개된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기에 때로는 타인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된다. 기억이 고정불변의 속성을 갖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고 망각해야할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의존적 제약의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에도 관여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특정 문화의 질서에 복종하는 사회적 주체로 탄생시키며 개인의 기억과 망각, 발화와 침묵을 통제한다.

따라서 황제인은 사회적 주체들의 기억과 망각의 과정에 접촉하는 이데올로기의 결절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역학관계에 얽혀있는 주체들의 기억을 유동적 속성으로 감각하여 우리에게 그 액체적 요소들이 뒤섞여 발생시키는 화학적 변화를 제시한다.

영상에서 여성은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월북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다. 월북자의 가족은 연좌제를 피할 수 없었던 만큼 당시 월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그의 존재와 관련된 기억이 어째서 이 시점에 발화된 것일까? 황제인은 과거에는 망각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사실이 어떻게 현재에는 기억해도 되는 것으로 변화되었는지 의문을 갖는다. 그렇게 우리는 여성의 가족들이 망각의 저장소에 억류해두었던 개별기억이 처음으로 흘러나와 공동 기억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마주한다.

또한 이 공동기억의 성형 과정에서 우리는 여성들의 말하기에 얽힌 문화적 질서의 억압을 보게 된다. 영상에서 어머니는 ‘이 선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목소리를 낮춘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에 종속된 여성에게 체화된 제약과 두려움을 적실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 선생의 존재를 여성에게 밝힌 것은 어머니였으며 그 새로운 사실이 외할머니, 고모할머니와의 접점을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접점은 당시 여성들에게 더욱 금기시되고 망각되기를 요구했던 기억을 소환하여 최초로 발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발생시킨다.

황제인은 <이 선생에 관하여 How to (not) live a legacy?> (2023)에서 시작점과 목표점이 구별되지 않는 서사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그는 고의적으로 명확한 구조잡기를 부정하며 혼란과 충돌을 택한다. 촬영자인 여성은 카메라 렌즈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프레임 안과 밖의 영역을 구획짓는지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가 아니라 청자로서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기를 택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은 어머니가 나무를 보며 떠올린 일종의 전형성을 띄는 영감에 기반한 제언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영상에 담는다. 그러나 외할머니를 인터뷰하던 어머니는 ‘네 할 일의 반은 내가 하고 있다. 작가 이름에 내 이름도 올리라’며 여성의 태도를 비판한다. 현시대를 바라보는 견해차가 불거지자 여성에게 ‘삐딱한 시각을 가진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한다.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지만 여성은 끝내 충돌을 수용한다.

영상 속 화자들의 말하기에는 친밀함과 어색함, 미숙함이 가감없이 드러난다. 황제인은 이렇듯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며 지식에 물들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을 주시한다. 그리고 그들이 긴장과 갈등, 협력을 통해 생성하는 우회로의 굴곡을 하나하나 따라간다. 지형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로를 택하여 그는 쉽게 억압되고 망각되어온 것들에 자신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즉, 가치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분짓고 서사의 방향을 기획할 수 있는 작가의 익숙한 권한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들은 언제나 변화가능한 과정성과 관계성에 집중하여 하나의 목표점을 갖지 않는 의미를 창조해낸다. 그리고 황제인은 우리가 이 역동적 상호작용에 실시간으로 가담하며 개방적 시각을 갖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전 작업에서 광주민중항쟁과 한국전쟁에 주목한 바 있다. 두 역사적 사건은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유골의 신원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사건 관련자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얽힌 기억은 과거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현재 시점으로 호명되며 사건 관련자들의 일상에 난입하고 있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매개한다. 이에 황제인은 다음의 문장을 인용하여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기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삶에서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트라우마의 잔재와 화석화된 기억을 해석할 윤리적 의무가 맡겨진다.”<sup>1</sup>

---

<sup>1</sup> “The younger generations are left with an ethical obligation to interpret the remnant of trauma and fossilised memories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roughout their lifetimes.”

Crystal Mun-hye Baik, *Reencounters: On the Korean War and Diasporic Memory Critiqu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20), 16. Jane Hwang, *How to (not) live a legacy? An Essay Film About Intergenerational and Posthumous Dialogues*, 2023, p.37.에서 재인용

트라우마의 잔재와 화석화된 기억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특정 사실을 어떠한 의미로 기억해야한다고 강요한다. 그들은 미래 세대가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화석화된 기억은 ‘과냉각 액체’라는 유리의 속성처럼 유동적이다. 피에르 노라(Pierre Nora)에 의하면 기억은 삶이고, 언제나 살아있는 집단에 의해 생겨나고 그런 이유로 영원히 진화되어가며, 기억력과 건망증의 변증법에 노출되어 있고,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왜곡되며, 활용되거나 조작되기 쉽고,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회복되기도 한다.<sup>2</sup> 이처럼 액체적 속성을 가진 기억은 살아있는 후속 세대에겐 운반되며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 될 것이다.

전시 [이 선생에 관하여]에서 ‘이 선생’은 화석화된 기억과 같다. 실제로 살아있는 몸에 담겨 흐르게 될 때에야 이 선생은 진화되고 재구성되며 역설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노라는 기억이 사실상 내용물 이라기보다 하나의 틀이며 가변적인 쟁점이고, 전략들의 집합이며, 존재하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는 어떤 실재라고 보았다.<sup>3</sup> 달리 말해 기억은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를 부여받는 실재이다. 그 가치의 틀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물망에 포위당한 이데올로기적 주체라는 사실을 건인한다.

황제인은 화석화된 기억을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간주하고 ‘어떻게 유산을 살(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부여하는 윤리적 의무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즉, 황제인의 작업은 ‘우리의 몸에 어떤 기억을 담을 것이며, 그 기억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실천적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가로서 이지영 (금벌레)은 거주의 개념과 인류가 사물, 공간, 이미지 등의 물질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하였던 5·18민중항쟁의 물질문화 및 다양한 형태의 기념의 실천에 관심을 두고 기획과 연구를 하고 있다. 금벌레는 Pavilhão Branco (Municipal Galleries, Lisbon)에서 개최된 전시 Strange Attractor, 2021-22에 참여하였다. 2021년에는 5·18 재판 관련 전시 법 앞에서는 공동 기획하였고,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였으며, 책 POST 5·18의 저자로 참여하였다.

---

<sup>2</sup> 피에르 노라, 기억의 장소 1, 나남, 2010, p.34.

<sup>3</sup> 앞의 책, p.14.